

SBS A&T지부, 긴급 간담회 15 차례 실시 “사측, 제작업무 경시.. 수익화 사업에 혈안”

SBS A&T 사측이 무리한 팀 간 통폐합으로 현업 부서의 업무 효율과 구성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방송 노동자들의 복구할 수 없는 권리를 침해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새롭게 들어선 SBS A&T지부 집행부는 조금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면면히 파악하고, 앞으로의 투쟁 방안을 설정하기 위해 긴급 조합원 간담회에 나섰다. 지난달 28일부터 9월 4일까지 1주일에 걸쳐 긴급 간담회를 15차례 개최했으며, 12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에선 △기구개편 후 현장 상황 청취 △노사 간 교섭 내용 공유 △향후 대응 관련 논의 등이 이뤄졌다.

비용절감 통한 단기 경영성과 강조.. 조합원들 “업무효율 크게 떨어져”

기구개편 후 일선 현장의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이질적인 부서 간 통합으로 조직 관리와 인력 운영의 효율성은 크게 떨어졌으며 곳곳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다. 조합원들은 A&T 사측이 단기적인 경영성과를 위해, 비용절감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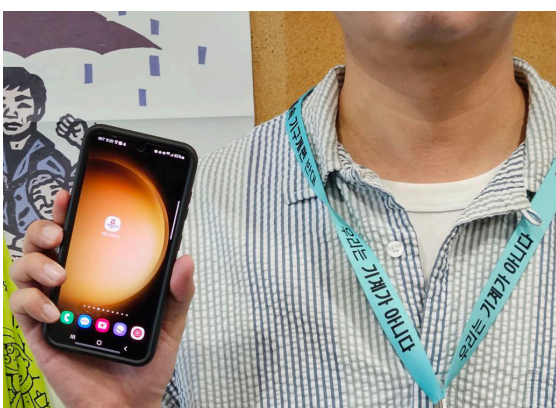
A 조합원은 “서로 다른 업무를 하던 부서를 인위적으로 통합하면서 보고체계, 업무수행 과정에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팀장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팀별 업무의 내용과 양, 그에 따른 적정 인원을 다시 파악해 하루빨리 기구개편을 반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또, 사측이 사장 담화문 등을 통해 약속했던 설명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B 조합원은 “사측이 기구개편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던 설명회는 두 달 넘게 깜깜 무소식이다. 설명회를 해야 궁금한 걸 물어보고 답을 들을 텐데, 왜 계속 미루는지 모르겠다. 노동조합 설문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면, 사측 자체 설문조사라도 진행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개편의 목적과 타당성에 대한 설득은커녕, 조직의 중장기적 비전과 전문성 결여가 확인되고 있다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C 조합원은 “아직도 궁금한 것투성이다. 책임 있는 사람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좀 해 달라. 사장 회의, 본부회의에서 현안이 논의되고 있을 텐데, 구성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위로 전달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2면에 계속>

노동조합 모바일 앱 출시

PC로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속하기 힘들셨죠? 이제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와이즈 노조 게시판 공지글에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아이폰용 다운로드 링크:
<https://apps.apple.com/us/app/sbs-union/id6456792790>

안드로이드용 다운로드 링크: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sbsunion>

<1면에 이어>

“사측, 수익화 사업 개발 압박”.. “업무변경 미동의 시 인사상 불이익 걱정”

D 조합원은 “사측이 자꾸 수익화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압박하는데, 기존 업무만으로도 포화상태였다. A&T는 본래 SBS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존재하는 회사 아닌가? 것처럼 프로그램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고민을 하고 싶다. 입사할 때 동의했던 제작 업무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E 조합원은 “본사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용역비 삭감 계획이 없다고 확인해 줬는데, A&T가 이렇게까지 사업 수익을 내려 혈안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고유 업무는 무시한 채 현업부서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본말이 전도된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F 조합원은 “당사자 동의 없이 고유 업무를 변경하지 않겠다지만, 거절할 경우 인사평가나 승진, 업무상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을까 우려스럽다”라며 “회사가 시니어 직원들을 무능한 사람들로 만들고 있다. 한평생을 바쳐온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이밖에도 두 달 넘게 공정방송 부문 최고책임자 중간평가제, 긴급평가제의 대상이 공백 상태인 것에 대한 불안을 호소했다. 사측이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중한 과실을 저지른 만큼 공적 기구나 제도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A&T 사측이 그동안 보여 온 노동조합 무시 행태가 이어질 경우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합원들은 이번 같은 간담회를 활성화해 노동조합이 부서별, 연차별 구성원들의 구심점과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사가 건강한 견제를 통해 상호 발전하는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폭넓게 수렴한 조합원 의견을 실현하기 위해 사측에 즉시 교섭을 요구했다. 이미 발생했거나 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물러섬 없이 협상할 것이다. 동시에 이번 교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은 단체협약 개정 협상을 통해 본질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노동조합은 진정으로 협상에 나서겠지만, 사측의 책임 회피로 협상 틀이 유효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순간 행동에 나서는 데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개인의 영달만을 좇는 몇몇에 의해 우리 일터가 망가지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신입 조합원을 소개합니다”



김현진
SBS 콘텐츠전략본부
아나운서팀

안녕하십니까. 경력 아나운서 공채로 입사한 김현진입니다. ‘건강한 콘텐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지지해 줄 수 있는 동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가 되어주신 노동조합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수록 관창은 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승엽
SBS A&T 미술제작본부
무대디자인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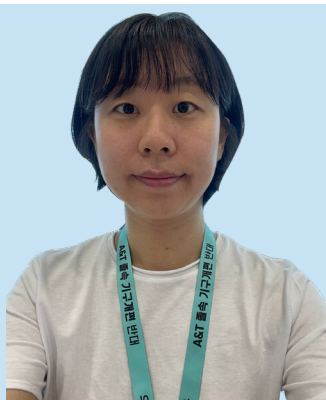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무대디자인팀 경력사원으로 입사하게 된 이승엽입니다. 든든한 노조가 존재해서 마음 편히 회사생활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쁩니다.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환경아래 SBS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는 노동자가 되기 위해 성실히 생활해보겠습니다.



이수아
SBS A&T 미술제작본부
스타일디자인팀

안녕하세요. 9월 1일자로 SBS A&T 스타일디자인팀 경력사원으로 입사하게 된 이수아입니다. 회사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성실한 조합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신임 사무처장을 소개합니다”



유혜승 사무처장

안녕하세요.
새로 사무처장을 맡게 된 유혜승입니다.
말은 바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조합원분들께는 든든하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노동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합원분들의 관심과 의견, 마음껏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방위 리포트

1. “이동관 후보 검증 노력 실종” 보도 원칙 물으면 “M, K처럼 하란 말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5일,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후보자 지명에서 임명에 이르기까지 29일 동안 후보자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과 자질을 검증하는 언론 보도들이 이어졌다. 언론장악 시도, 아들 학교폭력 무마, 배우자 인사 청탁, 배우자·자녀 증여세 탈루, 병역복무 중 취업, 농지법 위반 등 MB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당시 불거진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장관급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한 SBS의 검증 노력은 전무(全無)하다시피 했다.

지난 5일(화) 저녁, 공정방송실천위원 8명은 목동사옥 14층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오프라인 회의를 갖고 최근 SBS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별도 서면 의견제출 2명). A 공방위원은 “타사의 검증 보도에 대해 ‘기존에 제기된 의혹들을 재탕 삼탕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동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가 그런 의혹들을 취재한 뒤에도 보도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애초에 취재하지 않았던 것인지는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 위원은 “방통위원장이기에 더욱 엄격한 잣대로 검증에 착수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언론 노동자들의 복리에 직접 관련된 인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우리(언론)의 권력 남용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며 “다만, 이동관 씨의 ‘공산당’ 발언이라든지 언론인들이 위협으로 느낄 만한 행보들조차 ‘비판’이 아닌 ‘갈등’이나 ‘논란’ 프레임으로 접근한 점은 매우 아쉽다. 우리도 언론사인데, 마치 남 일처럼 보도했다(서면 의견)”고 지적했다.



정치권 공방 프레임 안에서 기계적 중립의 스탠스를 유지하며, 당사자인 시청자와 언론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다루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정부 여당의 대(對)언론 행보가 공영방송 때리기에 집중된 만큼 타사 이슈로 여기고 뒤로 물러서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C 위원은 “수뇌부에게 보도 원칙을 물으면 ‘그럼 MBC나 KBS처럼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하는 분위기였다. 개별 이슈 자체가 아닌, 언론 지형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가늠하는 식으로 밸류 판단하는 게 바람직한 저널리즘일 수 없다”고 말했다. D 위원은 “관리자들은 ‘현장에서 발제가 없었다’고 주장

할 수도 있다. 그 부분은 우리 기자들도 반성해야 한다. 하지만 집중해야 할 사안에 인력을 배치하고 취재단을 꾸리는 결정은 위에서 하는 거다. 그걸 못했을 때 질타를 받았던 게 우리 조직이다. 이 사안 보도에 있어 정말 우리가 의지를 가졌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 여야 공방에 초점을 맞춘 이동관 보도〉

“방송장악 의도…철회” vs “국민 방송 첫걸음” (SBS 8뉴스, 7/28)
 야당 “송곳 청문회 할 것”…여당 “이동관 낙마 사유 없다” (SBS 8뉴스, 7/31)
 “부적격” vs “적임자”…보고서 채택 불투명 (SBS 8뉴스, 8/19)
 “수사대상” vs “발목잡기”…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SBS 8뉴스, 8/20)

2. “홍범도 흉상 이전, 대통령의 ‘말’에 드러난 역사관 등 함께 분석할 필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한 최근 우리 보도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됐다. E 위원은 “‘국방부와 학계의 의견이 갈린다’로 정리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사실 관계를 취재해 더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인지 궁금하다. 메인뉴스 기준으로는 낮 동안 보고 들어 알고 있는 구문일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F 위원은 “대통령의 ‘말’은 어떤 식으로든 정책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라는 우리 분석도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타사는 광복절 축사나 국립외교원 기념사 등을 통해 드러난 대통령의 역사관, 이념의 강조를 묶어서 나름의 분석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줬다. 시청자들은 뉴스를 통해 합리적이면서도 종합적인 맥락을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가 된 국방부 대변인과 출입기자단 질의응답 브리핑(8/29)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출입기자들이 여러 근거를 들어가며 국방부 입장의 부실함을 지적했는데, 당일 우리 메인뉴스에선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타사는 메인뉴스 리포트와 디지털 콘텐츠로 큰 화제를 일으켰지만, 우리는 다음날에야 콘텐츠 생산을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주목도도 뒤떨어졌다. G 위원은 “국방부 브리핑에 시청자들이 이 사안에 대해 정말 궁금해했던 것들이 담겨 있었다. 브리핑 영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더라도 기자들의 질문과 국방부 답변을 정리하는 기사가 하나쯤 있어도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H 위원은 “디지털 콘텐츠 생산을 두고 팀 간 소통이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궁금하다. 게이트키퍼가 엄격하면 저널리즘에 더욱 충실한 기사를 생산할 수도 있겠지만, 빠른 판단을 요하는 디지털 공간에선 경쟁력을 깎아먹을 수 있다. 디지털 파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조직을 개편했는데, 지금 같은 기조라면 또 그런 일이 안 벌어지리라는 법 없다. 늦기 전에 의사 결정의 주체와 방식, 방향 같은 것들을 터놓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얼마나 부끄럽고 천박합니까!” 국방부 브리핑에 폭발한 기자들 (MBC, 유튜브 조회수: 549만 회 - 9/8 기준)
 “이 빨치산과 그 빨치산이 같나…” ‘홍상 이전’ 하다 드러난 국방부의 역사적 식견/모아보는 뉴스 - (SBS, 유튜브 조회수 79만 회 - 9/8 기준)

2023년 상반기 공정언론실천상

2023년 상반기 SBS 공정언론실천상은 <‘군에서 죽으면 개죽음?’ 이제는 달라질까>를 보도한 박하정 한소희 배문산 양지훈 이상학 박정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다량취굴의 비밀 1948 사라진 사람들>을 제작한 황성준 백시원 우용만 손하늘 <그것이 알고 싶다-사라진 7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을 제작한 김재환 오유경 <마부뉴스- ‘다양성이 사라진 대법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등을 보도한 안혜민 안준석 <마약 팬데믹 : 무너지는 미래세대 시리즈>를 보도한 조동찬 박하정 배준우 배여운 박재현 여현교 신용식 김민준 이용한 김승태 오영택 이승희 이준영 조수인 김준희 원형희 님이 수상했습니다.

유익한 콘텐츠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해 주신 조합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군 의료시스템 점검” 보도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다량취굴의 비밀” 제작진



그것이 알고 싶다 -“부산 돌려차기” 제작진



마부뉴스 팀



“마약 팬데믹” 보도팀

제2회 성평등언론실천상 시상

지난해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가 신설한 제2회 성평등언론실천상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 상반기 동안 SBS 구성원들이 제작한 콘텐츠, 혹은 성평등 가치를 실천한 조합원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각 수상자들의 인터뷰 전문은 노동조합 홈페이지(<http://www.sbsuni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평등한 스포츠 중계를 위한 고민
이현경 조합원 (아나운서팀)



청취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다양성
김서연 조합원 (라디오센터)



육아휴직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민낯
박찬범 조합원 (보도본부)